

# “기다렸다 신차 살래” 준중형 판매 ‘뚝’

한국 GM·현대기아차  
하반기 스파크·아반떼·K5 출시



신차를 기다리는 고객들의 대기수요로 경차와 준중형차 판매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자동차업계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올해 5월까지 경차의 판매 비중은 13.7%, 준중형차는 13.6%로 집계됐다. 경차 판매비중이 13%대로 떨어진 것은 2010년 이후 5년 만이며 준중형차는 2002년 이후 13년 만이다. 지난해만 해도 경차는 15.4%, 준중형차는 16.1%를 차지했다.

이처럼 경차와 준중형차의 판매 비중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신차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구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국GM과 현대차는 하반기에 각각 경차 스파크와 준중형차 아반떼 신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5~7년 주기로 신차 출시가 다가오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기 때문에 해당 차종뿐만 아니라 경쟁 차종을 포함한 차급 전체의 판매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수요로 인한 판매 감소 영향은 경차보다 준중형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1999년부터 16년간 줄곧 우위에 있던 준중형차의 판매 비중이 올해 경차 밑으로 떨어져 17년 만에 경차와 준중형차의 판매 비중이 역전됐다. 준중형차의 판매 비중은 1998년 외환위기 때 15.3%로 27.3%인 경차보다 낮았으나 이듬해인 1999년에는 수요가 회복되면서 16.9%로 14.1%인 경차를 다시 제쳤다.

업계에서는 1998년에는 극심한 경제위기로 경차가 준중형차를 넘어섰다면 올해는 대기수요의 차이로 인해 두 차급의 판매 비중이 역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반떼가 스파크보다 판매량이 많은데다가 6세대 아반떼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 대기수요도 더 크게 발생한다는 의미다.

올해 국내 자동차시장은 현대 투싼, 기아 쏘렌토, 르노삼성 QM3, 쌍용 티볼리 등 신차들의 인기로 SUV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20%대였던 SUV의 판매비중은 올해 5월까지 33.1%로 높아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하반기 준중형차 아반떼와 스파크, 중형차 K5 등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면 승용차의 판매비중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판매 비중 경차 13.7%·준중형 13.6%  
전년보다 각각 1.7%P·2.5%P 떨어져



올해 국내 자동차시장을 이끌고 있는 쌍용차 ‘티볼리’(왼쪽)와 기아차 ‘쏘렌토’.

## 獨 수입차 할부 금리 국산차의 2배

年 9%대...할인 혜택으로 판매 해놓고 높은 이자 받아

#차를 바꾸기 위해 얼마 전 폴크스바겐 전시장 찾은 직장인 이모씨는 딜러에게 견적을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가 눈여겨본 차종은 티구안 2.0 TDI BMT 프리미엄. 딜러는 폴크스바겐의 전속 금융사인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할부상품을 이용하면 차값 4750만원 중에서 365만원을 할인해준다고 제시했다. 현금으로 먼저 1300만원을 내고 나머지 2900여만원을 36개월 할부로 할 경우, 월 납입금은 이자를 포함해 91만원 가량. 금리가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씨가 나중에 직접 계산해보니 할부금리는 8.44%였고 3년간 내야 할 이자는 400만원가량에 달했다. 이 견적대로라면 차 값 할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자로 내야 하는 셈이다.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졌음에도 독일 수입차업체의 할부금융사들은 여전히 7~9%대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배짱장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금리 수준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할

인 혜택을 앞세우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식 영업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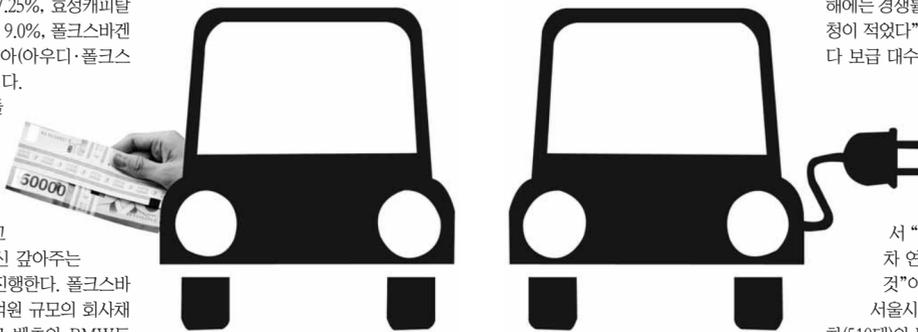
7월 업계에 따르면 독일계 수입차 할부금융사들은 구형이나 비인기 모델 등을 제외하고 할부금리를 7~9%대로 운영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공시된 업체별 평균 할부금리 현황을 보면 BMW의 도이치파이낸셜과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각각 8.86%와 7.25%, 효성캐피탈(메르세데스-벤츠)은 9.0%, 폴크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아우디·폴크스바겐)는 7.79% 등이다.

반면 국산차 업체들은 평균 4%대 금리를 형성하고 있다.

수입차 할부금융사들은 회사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 고객의 할부금융을 대신 갚아주는 구조로 할부판매를 진행한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4월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2%대에 발행했고 벤츠와 BMW도

지난해 말 각각 2.46%와 2.53%의 이율로 회사채를 발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채를 2%대 초반 금리로 발행했음에도 할부 이자를 최대 9%까지 받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 비용을 청구해 부당한 이익을 올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독일 수입차 업체들과 전속 금융사들은 영업이익이 100% 이상 늘었다.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기도 했지만 ‘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 ‘전기차’ 보조금 줄자 인기 시들

광주 100대 보급 계획 신청은 70대 그쳐...기한 연장

올해 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감소하고 유가가 내려가자 전기차의 인기가 지난해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지자체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서울시는 최근 각각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의 신청을 받았지만 계획한 대수만큼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1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지난 4월 공고를 냈지만 마감일까지 신청은 70대에 그쳤다.

광주시는 마감일을 지난달 24일에서 이달 30일로 늦췄다. 서울시도 신청 기한을 지난 5일에서 오는 26일로 3주간 연장했다. 전기차 구입 희망자들은 각 지자체의 민간보급 사업에 신청해 추첨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을 받는다. 대당 국비 1500만원에 지자체별 보조금이 더해진다.

순경중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은 “지난 해에는 경쟁률이 3대 1이었는데 올해는 신청이 적었다”면서 “유가가 많이 내려가는데다 보급 대수를 늘리다 보니 시 보조금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요를 다 충족할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1차 연장한 기한까지 대수가 다 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대상이 승용차(510대)와 트럭, 이륜차 등 565대이지만 신청 대수는 267대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서울시 역시 보조금이 수백만원 깎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보급 대수를 3배 정도로 대폭 늘렸다. 서울시의 지난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182대였으며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기차 보급에 가장 적극적인 제주도에서는 올해 지난해(225대)의 6배 이상인 1468대를 보급하는데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므로 제주도민은 모두 22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제주도를 포함해 부산, 대구, 창원, 순천, 영광 등 9개 지역은 이미 공모와 추첨을 통해 1801대의 배정이 끝났다. 기아 쏘울 EV가 가운데 가장 많은 41%를 차지했으며 르노삼성 SM3 Z.E가 3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반 차량의 2배에 이르는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대수는 3000여 대로 전 세계 보급 대수의 0.5%에 불과하다. /임동룡기자 exian@

## 분양/임대

목포하당 랜드마크에 개원하실 원장님을 모십니다.  
백년대로 기독교병원 맞은편 최적의 중심상권에 위치!  
아파트 배후세대가 6,000세대의 대단위아파트 조성!

층별	계약면적(㎡/평)	업종	비고
지하층	1,337(404)	주차장	
1층	1,000(302)	은행, 증권사, 약국, 커피숍	
2층	878(265)	은행, 병원, 커피숍	
3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4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5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6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7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8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임대료3.3㎡당 27,000원 (1,2층별도문의) 관리비3.3㎡당 8,000원



SL빌딩

임대관리

010-2618-7234  
건물주소 목포시 백년대로(상동)

## 투데이 경매

담양군 대덕면 광주~20분 거리에 위치한 물류센터건물 대형차 진출입여건 좋음  
대지 18234㎡ 건물 3672㎡  
감정가 14억9천  
최저가 6억4천

운암동 대단위아파트단지 공실걱정없는 우수상권 지하1층~지상3층건물 환원,PC방,독서실,카페 추천  
대지532㎡ 건물796㎡  
감정가8억5천  
최저가5억9천

신가동 신가C인근 주유소 하남대로변 통행량 매우많은 국유지1300㎡포함 사용중  
대지1422㎡ 건물559㎡  
감정가15억7천  
최저가11억

여수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아파트 정문 맞은편 위치한 준주거지역 건물율70%  
유적률240% 대지면적3230.2㎡  
대형마트,할인매장 추천  
감정가23억6천  
최저가23억6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근조화환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축하화환3단  
결혼, 고희, 전사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0